

민주당 '철새 정치인' 퇴출 의지 있나

총선 탈당 감점 '최근 4년' 제한 세번 탈당 전력자도 감점 없어 지역 정치권 등 거센 반발

현역 단체장 감점 25%로 하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에서 탈당 감산 기준을 '최근 4년 이내 탈당자'로 제한하고, 탈당 횟수는 아예 감산 기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철새 정치인'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선불복 경력자는 각 선거 때마다 감산 25%를 계속 적용하지만, 탈당 경력자는 4년만 지나면 감점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되는 상습 탈당자 이모씨의 경우 세번이나 탈당을 했지만 이 기준이 적용되면 감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인 기점을 나이에 따라 10~25% 각기 적용하는 것처럼 '탈당 횟수'도 공천 감산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당원 공천을 찬반 투표에 앞서 진행되는 당원 토론 기간에 철새 정치인이 기생할 수 있는 '공천률의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는 앞서 공개한 공천률 내용을 일부 보완한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하지만 현역 단체장의 무분별한 출마에 따른 감점을 높이고, 탈당 경력자를 엄벌하겠다는 방침은 크게 퇴색했다. 우선 민

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에 따른 경선 감점을 애초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서울지역 일부 출마 예정 단체장의 반발에 따른 것이라지만, 단체장의 출마를 억제하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다소 물러선 것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탈당 경력자의 경우에도 25%의 감점이 원칙이지만 선거일 전 150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자가 아니면 탈당 경력자 감산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반면, 경선 불복 경력자는 5년 이후 경선에도 25%의 감산을 적용받고 이는 매 선거 때마다 유지된다.

경선 불복은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서도 탈당 경력자는 4년만 지나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 셈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과거 3차례나 탈당을 일삼아 당의 위상을 떨어뜨리

고 당 경선 질서를 망친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 이모씨가 아무런 감산도 받지 않고 다시 입당을 하고 총선 경선에 나선다는 것은 당 운영과 공천률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탈당 경력자의 감산을 단순히 기간으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탈당 횟수에 따라 경중이 다른 감산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9일 총선 공천률을 당내 기구에서 의결하고 2주간의 당원 토론 절차에 들어갔다. 당원 플랫폼에서 찬반 토론이 진행되며 토론 절차가 끝나면 당원 플랫폼을 통해 권리당원 대상으로 당원 찬반 투표를 진행 한 뒤,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또다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특별당규는 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확정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헝가리 유람선 사고

여야, 희생자 애도

실종자 구조 총력 당부

여야는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한국인 관광객들을 한목소리로 애도하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정부는 가용한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헝가리 정부와 협력, 실종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돌아오라 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통화유출은 외교농단" vs "靑, 국정원장 감찰해야"

6월 국회 이틀 앞 여야 대치

이인영·나경원 심야 통화

국회 정상화 돌파구 주목

자중 소집되는 6월 임시국회를 이틀 앞둔 30일 여야는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놓고 여당은 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 법안 등 처리해야 할 6월 국회마

저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가 최근 불밀 접촉을 통해 '조속한 국회 정상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 중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건을 '외교안보 농단'이라고 규정하며 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동시에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강 의원의 통화 유출 사건을 거론, "(한국당이) 국가기밀 누설을 공익제보라고 하다가 이제는 야당 탄압이라고 한다"며 "공안 탄압이 어떠한지는 (공

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에게 물어봐라"고 밝혔다.

5월 임시국회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국회법상 '짜수달'에 자등으로 열리는 6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해 31일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원내대표가 전날 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당은 문제인 대통령이 전날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건을 직접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이 정쟁의 전면에서 섰다는 것이 한국당의 판단이다. 원장 양 원장 회동의 부적절성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하며 서 원장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취임 2년...소통·통합 내각 추구

'투톱외교' 해외 순방 10차례

안전·산업·보훈현장 적극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취임 2년을 맞아 주요 행보와 메시지를 담은 총 200페이지 상당의 보도참고자료 2권을 배포했다.

이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총리는 2017년 5월 31일 취임사에서 '내각다운 내각'을 '유능하고 소통하며 통합하는 내각'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설명'의 의무와 업무에서 크게 보고 작게 살피는 '대관소찰'의 자세를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문재인 대통령 대신 이 총리가 받았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과 당면 현안과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주례 회동을 총 60차례 했고, 이 총리 주재로 정부 정책을 점검·조정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79차례 개최했다.

총리실은 지난 2년간 정부의 국민안전 분야 주요 성과로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꼽았다.

급증하는 정상외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을 분담하는 '투톱 정상외교' 방침에 따라 이 총리는 지난 2년 동안 총 10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다.

SNS를 통한 대국민 소통에 적극적인 이 총리는 지난 2년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각각 1천249건의 게시글을 올렸다. 하루 평균 1.7개의 게시글을 올린 셈이다. 그의 페이스북 친구는 최근 5만6천여명으로 늘었다. /최권일 기자 cki@연합뉴스

두쪽 나뉜 바른미래, 이번엔 '징계' 격돌

당 윤리위, 오늘 심의 안건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포함

바른미래당이 31일 열리는 윤리위원회 회의 징계 안건 심의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징계 안건으로 바른정당계 수장 격인 유승민 의원과 손학규 대표의 퇴진론을 촉구하는 하태성 최고위원이 포함됐고, 역시 바른정당계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여부도 논의 대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손 대표 측근으로 통하는 이찬열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대상 안건이다.

당 윤리위는 3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송태호 당 윤리위원장은 "제소 건이 들

어와서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2주 전에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위원들 합의에 따라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징계안을 어떻게 접근하고 처리할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려는 당 지도부 '문제인 정권 하수인', '민주당 2중대'에 빚대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에게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노인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 이 최고위원은 4·3 보궐선거 당시 음주 유세를 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유 의원을 향해 '좁쌀 정치'라고 비판하며 "꼭두각시들을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한 사실을 바른정당계가 문제 삼았다. /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합의 추대...임기 1년 연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년 더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게 됐다.

정의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원내대표를 20대 국회 4기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별세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 이어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았으며, 이번엔 단독 후보로 등록해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다시 추대됐다.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이어진 상무위원회에서 "원내 5당의 원내대표 선출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5개월째 멈춰있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며 '6월 국회 정상 가동'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당장 오늘부터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을 인근, 투자가치 높음.
- 토지** ▶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중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옆.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중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높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장** ▶ 광주 북구 연제동 건물 : 2484.32㎡(751.5평) 지상2층 건물매매가, **감정가 : 40억5천만원 최저가 : (15%) 5억9천5백만원** (토지 임대가능)
- 공장** ▶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56%) 8억3천3백5십만원**
- 공장** ▶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토지 : 3305.7㎡(1000평) 건물 : 492㎡(148.8평) 지상2층 **감정가 : 7억8백4십만원 최저가 : (70%) 4억9천5백9십만원**
- 의료시설** ▶ 함평군 월야면 월거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56%) 22억6천만원**
- 의료시설**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70%) 10억1천7백4십만원**
- 근린주택** ▶ 목포시 옥암동 토지 : 555.7㎡(168.1평) 건물 : 1210.35㎡(366.1평) 지상4층 **감정가 : 15억9천8백만원 최저가 : (70%) 11억1천8백5십만원**
- 임야** ▶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토지 : 12900㎡(3902.3평) **감정가 : 1억9천3백5십만원 최저가 : (45%) 8천6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